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여는 질병관리본부

2010년 7월호

질병관리본부

News Letter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대구광역시에서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를 개최하고, 신종플루 방역에 매진한 총 414명에 대한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였다.
지난 2009년 4월말부터 2010년 3월까지 신종플루 방역을 위해 수고한 모든 관계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이 자리에는 유영학 보건복지부 차관, 신영수 WHO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그리고 전국 600여 명의 방역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에서는 이두익 인하의대 교수에 홍조근정훈장, 정희진 고려의대 교수에게 근정포장, 이철 연세대 신촌세브란스 병원장과 육군 제17보병사단에 대통령 표창, 국군수도병원과 대한 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에게 국무총리표창 수여 등 총 414명의 개인과 기관에게 훈장(1), 포장(1), 대통령표창(8), 국무총리표창(15) 및 보건복지부장관상(389)을 수여하여 신종플루 방역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였다.

평가 세미나에서는 신종플루 예방 관리에 대한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 각종 신종전염병 대비를 위한 개선대책을 점검하는 주제 발표와 토의시간을 가졌다.

목 차 Contents

http://www.cdc.go.kr


01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만들기
신종인플루엔자 평가대회


03 국제 행사
제 2차 아시아 환경·보건 장관포럼


04 국내 행사
2010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06 부서 소개
만성중독성질환 및 출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성 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치료기술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난치성질환과*


09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 협조


10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2010년 개정판) 개정 발간 – *기자간담회*


12 동호회를 찾아서...
질병관리본부 테니스동호회

사례 발표에서는 군대 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사례, 학교 내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사례, 병원 내 감염관리를 중심으로 군, 민간 대응 사례발표가 있었고, 국립검역소, 실험실 진단체계, 예방접종 등의 정부 대응 사례가 발표되었다.

2009년 4월말 미국에서의 확진자 보고 이후,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된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응한 사례였다. 초반에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역사회 전파 차단, 항바이러스제 투약, 예방백신 접종, 거점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한 환자관리, 진단과 역학조사가 이루어졌고, 세계보건기구(WHO) 및 한 · 중 · 일 3국과 해외 여러 나라들과의 국제협력, 대국민 홍보와 콜센터 운영 등 우리나라 보건의료분야의 모든 역량이 동원되었다.

특히 초반에 국내 유행을 최대한 지연시켰으며, 항바이러스제를 신속하게 비축하여 사용하였고 백신도 적절한 시점에 개발하여 전파 차단에 혁혁하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요원들은 물론 일선 보건의료 관계관들의 노고가 크게 기여하였으며 관련 부처, 나아가서 관련 협회와 전문가 등 민간 분야와의 파트너십도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신종플루 평가대회를 통하여 신종플루 대처에 있어서 민 · 관 · 학 각 분야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동시에 국제화 시대를 맞아서 언제, 어디서, 어떠한 형태의 신종전염병이 발생하더라도 조기에 신속한 검역을 통한 유입 방지, 지역사회 유행 차단, 환자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등 각 단계별로 적극적인 대처를 통해서 유행 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국제 행사

제 2차 아시아 환경 · 보건 장관포럼

지난 7월 14일~16일, 3일 동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제 2차 아시아 환경 · 보건 장관포럼이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서는 아시아 환경보건 역량 강화 의지를 담은 「제주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환경보건역량 강화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함으로써 아시아 내에서의 협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주제별작업반에 아시아 지역 신규 과제로 건강영향평가 분야를 추가 선정하는 성과가 있었다.

아시아 환경 · 보건 장관포럼은 아시아 각국의 환경 보건 주요 이슈 논의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ASEAN 10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폴, 태국, 베트남) 및 한 · 중 · 일 · 몽골 등 총 14개국의 환경 · 보건 관련 지역 협력체이다. 이 포럼은 **장관급 회의 3년**, 고위급 회의 1.5년, 자문위원회 1년 주기로 개최된다.

2007년 8월 태국에서 제 1차 장관 포럼을 개최하여 아시아 14개국의 환경 · 보건 분야 지역협의체인 지역 포럼 구성 · 운영을 위한 **방콕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환경보건 현안 대응을 위한 6개 분야 작업반(Thematic Working Group ; TWG) 구성하고, 2차 장관포럼 한국 유치를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최한 이번 포럼은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환경부 장관 등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학계, 시민단체 등), 언론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하였고, 해외 13개국 보건부 및 환경부 장관 등 관계공무원, 국제기구(WHO, UNEP 등)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아시아 지역 환경과 보건 분야 국제협력의 구심점이 된 이번 포럼의 가장 큰 성과인 「**제주선언문**」은 각 나라는 국가환경보건행동계획 또는 이와 동등한 계획의 수립을 수립하고 그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 · 보건 관리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 훈련, 모범사례와 기술 등을 공유하고자 지역 내 환경 · 보건 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센터를 개설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한편, 환경보건 이슈에 대해 전문가 작업반(Working Group)을 운영하게 된다.

대기질관리, 상수도 위생, 기후변화 및 오존층 파괴, 환경보건 응급상황, 건강영향평가와 같은 환경보건 이슈 해결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과 파트너십(partnership) 강화는 아시아지역의 환경의 질 향상과 보건증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행사의 성공은 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협의하여 주도적으로 제안하여 아시아 각국의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두 부처가 협력적 리더쉽을 발휘한데 기인하며, 향후에도 아시아지역에서 환경보건 이슈와 관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다른 부처들에도 좋은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행사

2010년도 상반기 전국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지난 6월 25일 제주에서 개최된 전국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매년 상반기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회의로서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관, 그리고 전국 16개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13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인사말에서 '10년 전 우리의 모습'을 되새기고 전염병예방법을 전면 개정한지 꼭 10년째임을 회상하였다.

당시 17개에 불과하였던 전염병을 80개로 확대하고 전염병 관련 각종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무난히 넘겼고, 생물테러 대비 각 시 · 도에 생물안전밀폐3등급(Biosafety Level3 ; BL3)을 건립하여 사업예산도 15배 증가하는 등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10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전염병을 감염병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하여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올해는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으로의 이전 후 5년 동안 해야 할 **'5세 계획(5SE Plan)'**에 맞추어 보건환경연구원은 국가차원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역사무소 실험실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된다. 각 시 · 도에 새로운 BL3 실험실이 건립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BL4 실험실 기능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시 · 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본부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역할과 임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의과학지식센터 건립을 통하여 의학연구의 국제화, 각종 병원체, 혈액시료를 지원하는 인체



자원은행, 줄기세포연구센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제수준의 연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건의료관계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및 광주광역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고, 개인표창으로는 시도보건원장 회의를 20여 년간 실무자로서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연구기획과 김수현 주무관이 수상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확산되는 수족구병의 유행 양상 파악 및 조기발견을 위한 실험실 감시망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4개 병·의원에 대한 수족구병 감시를 위한 병·의원 선정 및 실험실 감시사업을 수행하는데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리고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인플루엔자 변이주 검출을 위한 유전자 분석 업무 참여, 지역거점인프라 구축 사업추진, 생물테러 실험실 네트워크 강화, 오송 이전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확인진단 검사업무 협조를 부탁하였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현안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식품·의약품을 보건 분야로 한데 묶어 실시하였던 본 행사를 '보건의료분야'와 '식품의약품분야'로 분리하여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최근 서울시의 노로바이러스 실태조사 대책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현안문제인 광주시의 지역거점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재정지원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해결책과 방법론을 토론하였다.

2010년도 상반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관련분야 전문가들의 화합과 친목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며 하반기 연례회의는 11월초 전남 보건환경연구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함께 주관한다.







부서 소개

만성중독성질환 및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난치성질환 극복을 위한 예방 · 치료기술개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 *난치성질환과*

알코올 만성중독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제공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술 권하는 관대한 음주문화의 뿌리가 깊어 과음, 폭음 등 무절제한 음주습관이 만연해 있다. 따라서 알코올에 기인한 다양한 만성질환의 발생뿐만 아니라 가정 문제, 생산성 감소, 각종 음주 사고 발생에 따른 폐해가 한해 약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난치성질환과에서는 알코올이 만성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및 발병기전을 연구하여 이들 질환의 핵심 제어 표적유전자를 발굴함으로써, 향후 알코올기인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치료기술개발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알코올 사용 장애자들의 자가 관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특성분석을 통하여 배양 및 특정세포 분화기술 개발

줄기세포 기반 재생의학은 난치성질환의 극복을 위한 미래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차세대 성장 동력의 핵심 분야로서 기술선점을 위한 선진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난치성질환과는 국가줄기세포은행 등 줄기세포 · 재생의학 연구기반 구축 및 줄기세포 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질적으로 우수한 줄기세포주 확보 및 효율적 · 안정적인 배양법 개발 등 기반기술 연구와 줄기세포 특성분석 분화연구 및 임상적용 등 실용화 기술연구에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사업 및 업무 소개

만성중독성질환 연구

알코올성 간질환은 지속적으로 과다한 음주에 의해 유발되는 급 · 만성 간질환으로서 우리나라 만성 간 질환의 약 10%를 차지하는 중요한 질환이다. 이러한 만성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게서는 공통적으로 간섬유화(liver fibrosis)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간조직 내의 Disse 공간(space of Disse) 내에 위치하는 간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의 활성화에 의한 세포증식 및 ECM 생성증가의 특징을 보인다. **만성중독성질환 연구**에서는 이러한 간성상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활성화된 간성상세포를 세포사멸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간섬유화 발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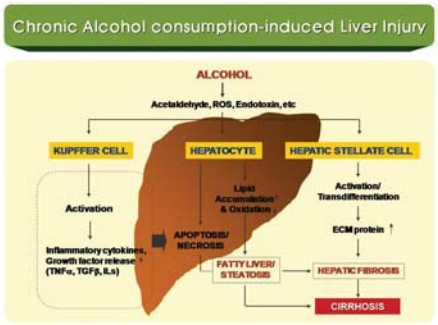
● 세포사멸을 통한 알코올성 간질환 제어표적 유전자 탐색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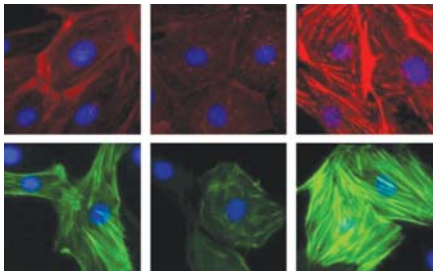
세포사멸은 세포 또는 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전 및 세포증식에 대한 보완적 기전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의 수는 세포증식과 세포사멸의 균형에 의해서 유지된다. 간섬유화는 간손상에 대한 조직의 복구과정으로서 간섬유화가 발병, 진행, 종결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성상세포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후 대량의 콜라젠을 생성하며 간경화를 유도한다. 따라서 활성화된 간성상세포를 제거하는 것이 간경화 진행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팀에서는 정상 간세포에서는 독성이 없는 트레일(Trail)이라는 물질이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함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된 세포신호 전달 메카니즘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간성상세포 활성조절 연구

간성상세포의 활성은 전반적으로 간 섬유화 및 간경화 발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예방 및 치료하는 데 있어 이에 관련된 조절기전을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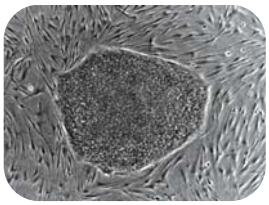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간성상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관련된 인자들의 기능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이와 관련된 인자들의 탐색 또는 기능 연구 등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이 밝혀져야 한다. 본 연구팀은 알코올성 및 비알코올성 간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에이엠피케이(AMPK) 단백질의 활성이 간성상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관련된 새로운 분자적 조절기전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에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콜라젠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표적인자를 발굴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함으로써 효과적인 간 섬유화 억제기술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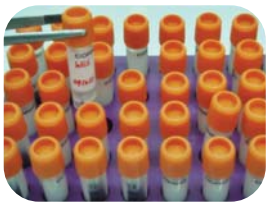


재생의학실용화 줄기세포 연구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무한히 자가 재생되고 적절한 외부적 자극으로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인간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발생학, 유전학, 질병 기전 연구, 신약개발, 난치병 치료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이의 수립 및 배양조건 등의 차이로 형태, 표지인자 발현, 분화능 등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다양한 특성의 차이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특정세포 분화 등의 기술 개발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은 인간 배아줄기세포주 배양기술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효율적인 분화 유도방법의 개발 및 관련 단백질의 발현과 기능을 규명하고자 한다.







● 간세포 분화법을 이용한 줄기세포 특성분석 연구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특정세포 분화유도 연구는 외배엽 유래의 신경계세포, 중배엽 유래의 심혈관세포와 내배엽의 췌장 β-세포와 간세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간세포로의 분화는 유전적, 대사성 간질환의 세포치료제, 질병발생 기작연구뿐만 아니라, 최근 임상적 적용 및 신약개발 초기단계의 세포기반 약물 스크리닝의 목적으로도 이용이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배아줄기세포주의 배양기술의 기초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특성분석을 통한 인간 배아줄기세포의 간세포로의 효율적인 분화유도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 줄기세포의 신경계분화에서 PcG 단백질의 분화 조절 연구

후생유전학 염색체를 구성하는 크로마틴의 구조적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히스톤 또는 DNA의 메칠화, 아세틸화 등을 통해 closed 또는 open 크로마틴을 유도하여 유전자의 발현유무 혹은 발현 정도를 조절한다. PcG 단백질은 대표적인 후생유전 조절인자로서 크로마틴의 리모델링을 통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줄기세포주 특이적인 PcG 단백질의 발현을 규명하여 줄기세포의 후생유전학적 특성을 밝히고 해당 단백이 조절하는 유전자를 규명하고자 한다.

● 줄기세포 조절에서 histone modification의 역할 규명

줄기세포의 효율적 배양 및 전분화능 증진을 위해 줄기세포에서 histone modification의 작용기전 연구가 필수적이며, 특히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도 과정 중 histone modification이 주요인자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배아줄기세포의 전분화능, 자가재생산 및 분화조절에서 histone modification 등 후생유전학적인자의 작용기전을 규명하여 줄기세포의 특성 분석 및 분화조절의 기반기술을 제공하고자 한다.

알코올 연구 국제 협력네트워크 구축

알코올로 인한 경제적 ·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 선진 알코올전략을 통해 국내 알코올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자, 미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코올연구소(NIH/NIAAA)와 한미 알코올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협정서(LOI)를 체결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한국의 국제 알코올연구 통합 조정 역할뿐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대만, 호주로 이어지는 환태평양 알코올 네트워크 구축으로 국제적인 알코올 공동대응체계에 참여하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알코올중독질환연구 국제워크샵(APSAAR : Asia-Pacific Society for Alcohol and Addiction Research) 등을 공동개최함으로써 국내 · 외 알코올 연구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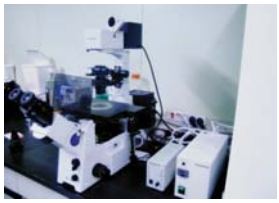





줄기세포 · 재생연구센터 건립 추진

난치성질환과에서는 줄기세포주의 신뢰도 제고 및 질 관리를 통한 줄기세포연구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줄기세포 · 재생연구의 임상적용 촉진으로 맞춤형 치료 구현을 통한 국민건강을 증진하고자 줄기세포 · 재생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줄기세포 · 재생연구센터는 줄기세포주의 배양, 특성분석, 저장, 질 관리 및 공급을 담당할 국가줄기세포은행과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 재생조직 연구, 안전성 및 효용성 검사, 임상적용 유용성 연구지원 등의 통합 지원기능을 목표로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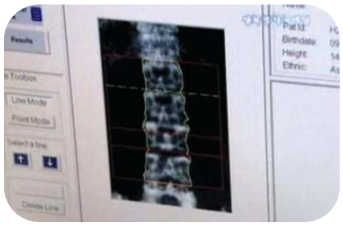
만성병 조사·감시도 질병관리본부의 일입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KBS 생로병사의 비밀」 제작 협조

지난 7월 1일, KBS의 대표적인 건강정보 프로그램인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칼슘 건강에 대한 내용을 방영했다.**

방송 내용은 「뼈의 경고, 칼슘을 흡수하라!」라는 주제로, **우리 국민의 칼슘 섭취 현황, 칼슘 관련 질환, 효율적인 칼슘 섭취 방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건강영양조사 제4기 2차년도(2008) 결과 및 조사 현장 취재 내용이 포함되었다.**







질병관리본부 만성병조사과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최근 결과 중에서 골다공증 유병률과 칼슘 섭취량 자료와 이와 관련된 외국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검진조사 및 영양조사 현장에 대한 취재에 협조하였다.

검진조사 중에서는 이동검진차량에서 골밀도를 측정하는 내용이 주로 방영되었으며, 영양조사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이 소개되었다.

또한, 방송 출연 대상자의 동의 하에 촬영 시에 조사한 1일간의 식사로부터 섭취한 칼슘의 양을 산출하고 이와 관련한 인터뷰에 응하는 등 방송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우리나라 2008년도 골다공증 유병률은 남자 4.9%, 여자 32.6%로(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08 국민건강통계」 참조), **여자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미국 등 선진국의 약 2배 수준**이며 우리나라 1인 1일 칼슘 섭취량은 475.8mg으로 한국인 영양섭취 기준 대비 65.4% 수준이다. **골다공증 인지율과 치료율이 낮아 전폭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시점에서 TV 방송 주제로 다루어진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할 수 있겠다.

향후에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일반 국민에게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디어 제작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방송 내용은 KBS 홈페이지에서 다시 볼 수 있다(http://www.kbs.co.kr/1tv/sisa/heal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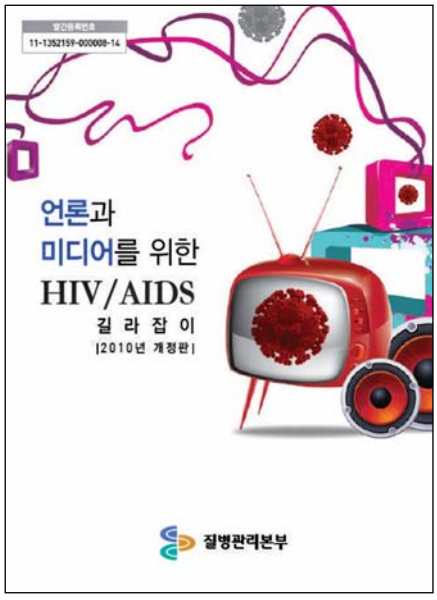
우리는 이렇게 준비합니다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2010년 개정판) 개정 발간 – *기자간담회*

지난 7월 13일,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의 개정발간에 따른 '기자간담회'에 질병관리본부 이종구 본부장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자, 복지부 출입기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HIV감염인과 AIDS환자의 인권보호 및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금번 발간된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는 2006년도에 처음 발간된 이후 4년 만에 전면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 에이즈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던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수록함으로써 에이즈 관련 취재보도 및 기사작성 등에 유용한 자료로 도움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민과 정부와의 소통의 다리가 되어주는 언론과 미디어에게 HIV/AIDS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HIV/AIDS가 지닌 사회·문화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최신의 동향과 정보를 담았다.



이 자료에는 HIV/AIDS에 대한 특징과 발견현황 그리고 국가정책을 수록하고, 이와 더불어 국민인식 및 언론보도 사례에 관하여 길잡이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록으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실었고, 그동안 에이즈 예방 공익광고 캠페인 및 광고공모전의 당선작도 볼 수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과 손현진 연구관은 "사람들 대부분이 에이즈에 대한 정보를 기존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음에 따라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에이즈 관련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설명하며, HIV/AIDS의 잘못된 지식과 오해로부터 야기되는 감염인에 대한 편견 및 차별해소를 위해 언론과 미디어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하였다.

2009년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지식, 태도, 신념 및 행태를 조사한 결과, '에이즈 감염 시 직장에서 추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로 작년에 비해 1.5% 감소했지만, 미국(18.5%), 프랑스(8%)에 비해서는 여전히 차별인식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한국(45.3%)이 프랑스(20.7%), 미국(14.9%)에 비해 HIV감염인을 좀 더 차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와 관련된 지식 조사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이즈가 키스로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비율은 한국이 62.8%로 미국 82.9%, 영국 94%에 비해 낮았고, 이 같은 비율은 변기로 감염이 되지 않는다, 콘돔으로 예방 가능하다 등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정답률이 낮았다.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 제작과정」

◉ 2006년 ver. 1 :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

❖ 2005년 7월
- 안종주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원고작성 「에이즈 취재보도 준칙 제정에 관한 제언」을 바탕으로 제작준비
- '05년 제1차 에이즈 교육·홍보분과위원회 검토
- '05년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대책위원회 검토

❖ 2006년 2월
- '06년 에이즈 예방 교육·홍보사업 검토

9월
- 보건복지부 출입기자(일간보사, 노컷뉴스) 검토

9월
- HIV감염인 검토

10월
- 최종검토(분과위원, 제작준비팀, 안종주 전 한겨레신문 보건복지전문기자)

◉ 2010년 ver. 2 :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2010년 개정판)」

❖ 2009년 9월
- '06년도에 제작된 「언론인을 위한 에이즈 길라잡이」를 바탕으로 제작준비

11월
- 개정판 길라잡이 제작 착수회의 및 챕터별 업무분담

12월
- HIV/AIDS 관련 기사 수집 및 자료분석·정리

1월
- 개정판 길라잡이 제작 회의 및 중간검토

1월~4월
- 'HIV/AIDS 취재보도 사례' 심층 분석

❖ 2010년 5월
- 길라잡이 검토위원 검토

6월
- 최종검토(외부검토위원, 제작준비팀)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는 언론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취재 및 보도를 할 때 나침반과 같은 안내서가 될 것이며, 감염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하며, HIV/AIDS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동호회를 찾아서...

질병관리본부 테니스동호회



질병관리본부 테니스동호회는 테니스를 통해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가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국립보건원의 역사와 같이하여 지금까지 30년 이상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7명의 회원(회장 김기순, 총무 이상은)이 활동하고 있다.

테니스동호회는 보건복지부장관배 테니스대회를 비롯하여 관련 기관의 각종 테니스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1980년 보건사회부장관배에 처음 출전했을 때 여자부 준우승을 시작으로 1990년대까지 다양한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2006년 제22회 보건복지가족부장관배 여자부 우승, 제7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배 남자 I부 우승, 2010년 제26회 보건복지부장관배 남자 II부 우승 및 여자부 준우승, 제11회 식품의약품안전청장배 남자 I부 준우승 등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2004년에는 제1회 질병관리본부장배 친선 테니스대회를 개최하여 23개팀 150여 명이 참가하여 유관기관 간 테니스대회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는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한편,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 테니스동호회와 함께 '지음(知音)배' 라는 정기 테니스 대회를 봄과 가을에 상호 원정형식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1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테니스동호회는 앞으로도 신규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 강습을 추진하려고 한다. 동호회 가입은 동호회 총무(이상은, 380-2185)에게 문의하면 된다.

앞으로도 테니스를 통한 동호회원들과 관련 기관간의 친목도모와 심신수련에 더욱 정진할 계획이다.

발 행 일 : 2010. 7월 (통권 제82호)
발 행 인 : 이종구
편집위원 : 최혜련, 박미정
발 행 처 : 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과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번지 (우) 122-701
전 화 : 02-380-2631~5 팩 스 : 02-354-2723

질병관리본부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 PREVENTION

ISSN 1976-7579
07
9 771976 757908